

사회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가정교과 내용 혁신 연구

박 명 희*

동국대학교*

A Study on the Content Innov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a Reflected in Social Change & Need

Myung Hee Park*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As our current society is increasingly demanding a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 that projects the recent changes around us, in this study we hope to present which fundamental materials would be needed in Home Economics Education to satisfy the needs of learners in schools and to provide actual practice and information crucial to live in the future society. A reform of the present Home Economics regime is needed, and as a result of critical analysis on the subject we found that it did not portray the plurality of family relations and cultures owing to the sudden changes in society, nor did it present an active curriculum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s. This was partly because of the matter of establishing a proper academic identity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matter of specializing curriculums and general methods of applying them, the academic conservatism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and ineffectiveness of teacher reeducation as well as a lack of leadership on the part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e objective and content structur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hould be reformed to adjust to the current society by taking an approach focused on family and the consumer. In the family part, curriculums should include the formations of various family structures and home cultures to portray a more open concept of family, which should promote gender equality in matters of child upbringing and housework. From a humanitive perspective, Home Education should be dealing with the mediation and decision-making of individuals caught between social advancement and household functions, their communication skills in choosing and deciding, and furthermore their participation in their living communities which may present more material on public service programs in welfare centers around the area. These themes should be presented on the

basis of critical scientific philosophies to be discussed in class. Additional themes such as sustainable consumption for earth environment and resource preservation and ways of application to rebuild our diminishing society must also be included in the education curriculum. We should look to find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Home Economics Education rather than the present field based and specialized regime.

주제어(Key Words) : 가족의 다원성 (the plurality of family), 가정교과의 내용혁신 (content innovation of Home Economics curricular), 생활 공동체 참여(participation in their living communities), 지속가능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비판 과학적 철학(critical scientific philosophies), 통합적 접근 (integrated approach)

I. 문제의 제기

최근 가정학을 둘러싼 다양한 도전들은 1929년 한국사회에서 가정학이 소개되고 80여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가정교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가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 소개된 시기는 봉건사회의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신여성들의 향학열이 높아가고 있을 때 도입된 교과였으며 그 내용은 보통학교 와 고등보통학교의 여학교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가정교과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생활 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새로운 과학적 지식에 대한 실용성과 응용성을 강조 하였다. 의식주는 물론 노인양육, 자녀양육과 금전의 출납, 환자의 간호, 친척·지인과의 교제 등에 이르기까지 가정을 전부 관리하는 것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에 응용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가정교과의 내용이 구성되는 배경에는 전통적 가부장제하에서 여성교육교본으로 가르쳐 왔던 여성의 부덕에 관련된 내용과 신식 학문으로서의 미국의 가정학 내용 그리고 일제 강점기 통치수단으로 필요한 가치교육 등이 통합되어 있었다.

여성교육에 대한 내용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기준으로 부녀자에게 가정을 다스리는 교습서 인 내훈(內訓)이나 계녀서(戒女書) 산림경제 가정 편 등의 전통적 여성교육교본들과 일본, 미국 등의 가정학의 내용인 생활의 과학

화 부분들이 적절히 혼합된 내용들이었다(문 수재, 1998). 또한 근검, 질서, 청결등과 같은 일본의 생활 관습 익히기를 포함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생활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전 미경, 2004).

이러한 가정학의 내용은 해방이후에도 지속되고 5차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기까지 여성교육의 기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초·중등학교 실업·가정 교과로 자리매김하여 왔었다. 70년대 후반부터 소개되기 시작한 여성학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정교과는 양성평등교육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목으로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이 시기 가정학이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변화시키는 교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교과 관련학자들과 교사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존속시키면서 소폭의 변화만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적 태도를 지켜왔다¹⁾. 따라서 가정교과의 작금의 도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견된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사회는 해방이후 경제발전이 진행되면서 농경사회(1950년대)에서 산업화 사회(1980년대)를 거쳐 탈산업화 사회의 특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의 특성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소득의 양극화, 가치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점차 다원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로 갈수록 더욱 다원화되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삶에 대한 가치관도 다원적이 되고 있다.

1) 6차 교육과정 개정당시 가정교과 내용이 사회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가정교과의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가정교과를 기술교과와 합쳐서 가정 “생활관리”라는 새 교과로 통합하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이 제안은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른 가정, 기술 양 교과를 편이성에 의해 물리적으로 통합할 수 없다는 논리와 교사배출의 문제에 부딪쳐 무산되었고 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이란 통합교과 (그러나 내용은 병합인)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교과가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교과와 내용은 기존의 산업화 사회의 패러다임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 요구하는 참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성교육에 대한 보수적 시각으로 인해 성교육 분야를 보건 교사가 전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 영양사들의 영양교육요구, 생활과 과학 교과에서 기존의 가정교과가 다루었던 영역을 다룬다던가, 도덕 교과에서 가족관련 내용을 다루는 등 과거 가정교과의 내용영역으로 인지되어 있던 분야가 타 교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지면서 가정교과의 전문성에 도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영역들의 교과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등을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교과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반면 가정교과의 경우 교육수요자가 기피 내지 이제는 필요성에 의문을 품는 내용영역을 가정교과의 내용으로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타 교과 담당자나 학부모, 또는 일부 가정교육 담당자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현실에서 가정교과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변화시켜 교육수요자가 추구하는 요구에 부응하면서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원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여 보는 것이 오히려 최근의 다양한 도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가정교과의 내용혁신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한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가정교과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혁신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나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방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정교과의 교육과정 내용을 보는 관점은 구체적인 내용요소의 분석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총론적 차원에서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의 요소가 어떻게 편입되었고 어떻게 유지되었는가를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당시의 사회적 요구나 총론 교육과정의 목표차원에서 어떤 논리로 편입되고 삭제되었는지를 문헌적 고찰과 당시 교육과정개정시 참여했던 참여자의 회

고를 통한 전문가의 구술에 근거하여 고찰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였던 참여자로서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응해준 참여자는 4차와 5차에 참여하였던 교수 1인, 6차에 참여하였던 교수 3인, 그리고 5차와 6차에 참여하였던 교육행정가로서 1인, 7차에 참여하였던 교육행정이와 교수 각 1인으로 총7인의 가정교육 전문가와의 개별적 그리고 사회학, 교육학 그리고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여교수 3인의 소그룹 집단 면접 등 총 10인을 통해 구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의문점이 남는 부분은 차후 전화를 통한 후속 보완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 시기는 2004년 11월부터 12월에 집중적으로 면담을 하여 자료 구술을 하였고 차후 부족한 내용을 전화로 구술 받은 시기는 2005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보완구술을 시행하였다.

본연구의 구성은 따라서 가정교과의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가정교과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교과내용 도입의 지체원인이 무엇이었나를 파악하였으며 가정교과의 내용혁신을 위해 사회나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가정교과의 내용혁신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내용혁신에 있어서 그 범위는 기존의 가정교과의 내용의 범위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가정학 전공자가 생각하는 가정교과의 내용요소 외에 타 전공자나 교육수요자 그리고 사회에서 기대하는 내용혁신에 대한 요구도 포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론이 기존 가정교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하나의 탐색적 연구라는 점을 밝혀둔다.

III. 가정교과의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가정교과의 변천과정

가정교과가 외부의 도전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4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해방이후부터 가정교과는 여학생의 일반교과로서 주당 3-4시간이 할당되어 있었고 특히 2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였던 1968년도에 국민교육헌장 선포로 산업화 시대의 1일 1기(技) 교육의 중심 가치가 기술교육이었는데 이 시기 여학생의 경우 가정은 주당 3시간을 필수로 하고 기술교육과 관련된 3시간을 주

당 3시간으로 할당받아 가정교과에서는 일반 가정학영역을, 기술 교과는 가사 과목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제가 교사로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가 1971년이었는데 그때 처음 중학교에 발령받아서 가르친 내용이 목공구의 이용과 기계공구제작법이 기술 교과에 있어서 그 부분을 교육과정 내용에서 가르쳤어요. 그때는 중학교 1학년에서 가정 3시간, 기술 3시간을 해서 가정선생님이 모두 일주일에 6시간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정, 기술의 구별 없이 6시간을 적절하게 운영했었어요. 그러다가 2년쯤 지나서 기술교과가 명칭이 가사로 바뀌었죠" J 교장

이 시기 가정과 기술(추후에 기술교과의 명칭이 여학생의 경우 가사로 바뀜)교과의 내용에 차별화되는 부분이 없다하여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지적을 받아왔고 4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부터 기술과 가정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이연숙, 2002). 5차 교육과정 개정시기인 1987년에 실업·가정과목군에서 가정, 기술·가정, 그리고 기술의 3과목 중 1과목을 학교에서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이 시기에 이미 남녀가 공통으로 가정과 기술내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기술과 가정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으나 기술과 가정은 원래 교과가 편입된 배경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학문적 체계도 다르므로 한 교과로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임에도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편의적 발상으로 이를 한 데 묶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6차 교육과정 개정시기인 1992년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왔던 기술과 가정교과의 통합문제를 불식시키고 농·공·상·수산 과목을 통합하여 기술·산업교과로 하고 가정과목과 가사과목을 통합하여 가정교과로 하여 가정교과를 남·여 모두에게 공통으로 이수하는데 합의 하였었다. 당시 가정학 계에서는 여성학에서 주장하는 양성평등 개념에 입각한 평등적 가정생활을 위해 남녀 모두에게 가정교과를 이수시킨다는데 목표를 두고 산업교과로서의 가사교과를 과감히 포기하고 이수시간을 줄이더라도 가정이란 교과를 남녀 모두에게 이수시키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그때 대안 했었죠. 전국의 가정대학 교수들과 가정교육과 교수 그리고 전국의 교사들이 모두 모여 남녀 모두에게 가정을

가르쳐야 한다고 공청회도 하고...그때 아마 코엑스 센터에서 거의 몇 천 명이 모여서 학부모, 교수, 교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대규모 공청회를 한 기억이 나네요?" 퇴직 p 교수
"6차 가정교과의 개정을 위해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키면서 교육과정 개정시 무엇보다 가정교과의 정체성을 살리되 가정교과를 남녀 모두에게 가르치는데 역점을 두고자 노력했고 그것은 시간수의 확보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서 시간수를 줄이더라도 가정이란 교과를 살리자고 생각 했죠" 당시 교육행정일선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주관했던 행정전문가 L씨

당시 총론 팀에서는 가정이란 교과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가정과 기술을 통합한 "생활 관리"란 한 교과로 만들라고 주문했었다. 그때 가정교과의 성격에 대한 논의도 많이 되었는데 실업교과 군에 있기 보다는 국민 모두가 이수해야하는 교양적 기본교과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가정교과를 일반교과로 하여 남녀 모두에게 이수시키고, 기술·산업 또한 남녀 모두에게 이수시키는 양성 평등적 이수 정책은 7차 교육과정개정과정에서 기술·가정이란 통합적 교과로 하여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말았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임용조차 기술·가정교사라는 세계의 유례없는 시행령을 만들었고 정책당국은 이러한 교과를 물리적으로 통합하고자 애쓰고 학계와 현장 교사들은 이를 반대하고 통합의 불가함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이상봉, 2004).

당시 교육 과정 개정 작업 시 참여했던 Y 교수 와 K 교장은 총론 팀과의 최종 논의 과정에서 "기술·가정 교과로 하여 10대 교과로 편입되어 필수교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각각 분리되어 선택교과로 남을 것인가를 최종결정하라는 요구를 받고 숙고 끝에 기술·가정으로 하되 교육은 팀 티칭으로 한다. 라고 합의 하였다"고 기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후 교육부의 시행령에서는 기술·가정 이란 교과가 새로 탄생한 것이니 교사도 기술·가정교사로 새로 만들어 저야 한다는 논리로 시행령대로 실시할 것을 기계적으로 주장하고 그 후 4-5년간 기술·가정교사 만들기를 주장하는 교육부와 기술·가정 교과를 한 교사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각 학회와 교사단체들과의 논쟁과 반대로 인해 현장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당시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였던 당사자들에 오해와 갈등구도 까지 발생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2.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교과내용 도입의 자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정교과의 필요성에 대해 도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급속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내용이 이에 맞게 변화하기 못하였으며 특히 변화하는 가족의 구성과 가족문화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으며 보수적인 가정학의 정체성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란 지적이 많았다.

1) 급속한 사회변화가 원인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여왔다. 해방이후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사회의 산업구조는 농업중심의 국가였고 60년대 초 경제개발 시기를 필두로 산업화 사회로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와서는 탈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가 50년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50년대 불과 일인당 GNP가 80\$인 국가에서 2004년 일인당 GNP 14000\$인 사회가 됨에 따라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산업구조가 농업 국가이고 경제수준에서 1인당 GNP가 100\$ 이내인 시대의 사람들의 삶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가족원들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알뜰하게 의, 식, 주생활을 해결하여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제한된 자원 하에서 그나마 가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술들에 학습 수요자는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서양조리 방법이나 서양의복 만들

기, 그리고 재래식 부엌을 서양식으로 편리하게 고치는 기술 등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었다.2) 그러나 이제 1인당 GNP가 10000\$ 이상이 되고 사람들의 삶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의, 식, 주의 생활 향상이 아니다.

“글쎄 가정교과가 아직도 있어야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둘 다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아이를 함께 잘 키울 수 있는지, 또 가족이 어떻게 즐겁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지, 매일 매일의 쇼핑과 소비 생활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 아기 유아먹이는 법이나 또 옷 만들기 같은 것을 전국의 모든 학생이 강제로 배운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내용 아냐? 아니 재봉틀 다루기까지 있더라니까 참 내 우리 집은 재봉틀 없어진지가 20년이 넘는데 그걸 꼭 전 국민이 알아야해?” 문 화인류학 전공 A 교수
 “요즘 애들한테 자신의 일생동안 어떤 직업생활을 계획할 것이며 어떻게 평생 자신이 원하는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나의 노후의 복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걸 가르쳐 주면 그건 너무 좋지” 교육학 전공 여교수 J 씨3)

현재 우리사회는 산업화 사회의 특성과 탈산업화 사회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의 특성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변화속도가 너무 빨라 변화를 빨리 따라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소득의 양극화, 가치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점차 다원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박명희, 2004). 따라서 미래 사회로 갈수록 더욱 다원화되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삶에 대한 가치관도 다원적이 되고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2) 1955년에 제정된 초등 실과의 경우 꽃밭설계, 닭치기, 토끼 기르기는 물론 종이 공작, 종이근 봉투 책 매기, 노트를 질그릇 등의 식기 닦기에 서부터 조리로는 감자찌기, 단추달기, 구두 닦기 인두질, 비누로 빨래하기, 구충제 먹기, 구강위생, 세수하는 방법, 목욕하는 방법, 토장구 끓이기, 나박김치 담그기, 명태 말리기, 손수건 앞치마 만들기, 해진 옷 꿰매기, 코바늘뜨기, 무명옷 빨기, 형질에 물들이기, 응급처치, 소독, 가계부 금전출납부 적기, 경단 만들기, 도넛 만들기, 뜨개질, 수놓기 등 당시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생활실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일상생활의 개선에서 매우 필요한 것들이므로 교과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문교부령 제44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실과의 학습내용). 중, 고등학교의 교과내용에는 조리, -주식, 부식, 과자, 음료, 식품가공저장, 해충구제, 기생충, 보건 위생, 가정간호, 김치, 찻갈 담그기, 통조림, 병조림, 훈제가공, 양조, 방직, 염색, 표백, 재봉, 세탁, 재단, 편물, 방직염색, 설계 제도, 뜯기와 손질, 계산, 주산, 양육 자금 등과 가정과 위생, 교육과 직업의 안정, 가정생활, 가정경제, 고용과 직업의 안정, 의식주의 계획, 각종직업인, 개성과 적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교부령 제 45호, 1955년 중학교 실업·가정과의 교육과정).

3) 2004년 현재 초등실과와 기술·가정의 가정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이 스킵자수, 뜨개질, 손바느질과 밥과 빵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청소와 쓰레기 처리하기, 책상과 옷장 정리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기구다루기, 전자키트 만들기, 꽃과 채소 가꾸기, 컴퓨터 다루기, 용돈관리하기, 일과 직업의 세계, 간단한 음식 만들기, 재봉틀 다루기, 목제품 만들기, 동물 기르기, 집안환경 꾸미기 등(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필요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 다원화된 가족의 구성과 가족문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함인희(2004)는 우리사회의 가족이 핵가족화를 넘어 새로운 가족의 개념으로 다가온다고 역설하면서 그 증거로 '나 홀로 가족'의 증가를 제시하였다. 2000년 기준으로 25-34세 인구 중 미혼의 비율이 남자 10명 가운데 4명, 여자 10명 가운데 2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나 홀로 가족들은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최근 50여 명의 미혼여성들이 모여 싱글 여성모임을 꾸렸는데, 이 모임은 공동체와 독신을 접목한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서 가족 공동체의 장점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노인 단독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13.7%, 부부끼리만 사는 경우가 16.4%에 이른다. 3세대 확대가족의 이상이던 효도와 존경이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치환되면서 나타난 노인 단독가구는 앞으로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더욱 보편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혼의 증가로 인한 '한 부모 가족'의 확산도 10년 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다. 이들 가족의 최대 현안으로서 부모와 자녀의 성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현재 호주제 폐지를 위한 입법이 예고된 상태에 있다. 부모의 이혼은 가족의 세포분열을 더욱 가속화시켜 소년소녀가장 가족,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손자 손녀와 사는 가족, 재혼 부부가 구성하는 다양한 조합의 '복합가족' 등을 구성해내고 있다. 또한 '살아보고 결혼하기'를 추구하는 동거(living together)도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⁴⁾.

“사실 가족의 변화양상에 따른 사람들의 삶에 지침을 줄 수 있는 현실적 해법들을 현재의 가정교과는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가정교과에서 가르쳐 내고 있는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많은 가족들이 자신의 가정의 모습

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못하는데 대해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죠” 사회학과 O 교수는 주장한다. 물론 가정교과에서 그러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정교과에서는 웰빙 문화나 건강한 가정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만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 다원화된 가족들이 진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와 삶의 지혜를 제공하는 교과목으로서의 목표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단편적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나 이웃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과 삶의 방법에 대한 접근은 시도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하는 어머니 한 부모 가족에 대한 배려심과 같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지침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3.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교육내용의 보수성

가정교과가 사회로부터 학부형으로부터 호응 받는 교과가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내부로부터의 문제도 다수 존재한다. 가정학은 도구과목이 아닌 응용과학이고 실천과학의 특성 때문에 사회변화와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변화의 속도수용이 앞서나가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 소극적 변화로만 그쳐 왔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변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다.

1)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가정학에 대한 정의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여 왔지만 가정학은 순수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실천, 응용과학이라고 귀납하면서 대상을 인간, 가정생활,

4) 결혼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결혼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기존제도의 매력적 대안으로 등장해온 이들 동거 양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즉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적 이유나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미룬 '미혼(未婚)동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의 양상은 '비혼(非婚) 동거'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비혼 동거는 일정기간 함께 살아본 후 결혼 여부를 결정하자는 자발성이 두드러진다. 여기서의 관건은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결혼을 결정하자는 것이요, 커플 공히 독립채산제 및 철저한 가사분담에 입각한 평등한 관계 유지에 중점을 둔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족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해 가는 종로구의 자율학교-물고 모임, 경기 화성군의 야마기시 마을, 전북 부안군의 한울 공동체, 전국 귀농운동본부의 생태마을 등의 공동체 실험도 주요 신가족의 하나로 주목되며, 우리에겐 여전히 낯설지만 동성애가족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함인희, 2004)

5) 이 부분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당시 여성할 관련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다. 즉 다양한 가족의 패턴이 존재하는데 건강가정의 개념을 부모와 부모사이에 혈연으로 이루어진 자녀만을 건강가족으로 개념화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가진 다른 가족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개연성이 있음을 이유로 가족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가족 중심적 이념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였다. 접근 방법으로는 인간과 이의 집합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관계에 중점을 둔다는 인간 생태학적 사고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80년대 가정 학회와 가정대학들이 학문의 연계 체계에 대한 논의에서 사회변화에 따른 인간생태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부분의 가정대학의 명칭을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 또는 생활 문화 대학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⁶⁾. 또한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변화에 따라 가정학은 인간 생태학이란 명칭과 함께 접근 방법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함을 제시하고 있었다.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함께 중고등학교의 가정교과도 그 접근과 내용을 변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정교과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학문적 변화 틀을 내용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였다. 미국의 경우 가정학의 철학을 인간 생태학에 두어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20여년간 이 문제로 고심해 오다가 1993년 가정학 관련 5개의 단체가 모여 가정학의 명칭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 때 논의를 거쳐 바꾼 명칭이 '가족과 소비자학(Family and Consumer science)'이다. 이러한 명칭과 함께 연구의 방향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와 환경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이 새로운 이름은 가정학이 종래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고정관념에서 확장시켜 가정보다는 좀 더 광의의 분야까지 중점을 두고 의사소통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즉, 개인, 가족과 공동체의 웰빙에 중점을 두었고 소비재화와 서비스의 분배와 평가 그리고 발전에 영향력을 미치며 정책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인간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을 목표로 삼았다. 1994년에 미국의 5개의 가정학 관련단체들은 투표를 통해 그들의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여 '가족과 소비자학'으로 개정한 명칭에 맞게 공식적인 이름을 변경하였다(Sarah Stage & Virginia Vincenti, 1997). 따라서 미국

가정교과의 명칭도 바뀌었고 그 명칭에 맞게 내용도 변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6차 가정교과 개정당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소비생활 분야가 새롭게 신설되었으나 7차 개정 시 이 단원이 축소되고 말았다. 반면에 7차 개정에는 정보화에 따른 생활 문화의 이해가 필요함을 이유로 가정생활 문화 단원이 생기고 소비문제는 그 안에 포함시키고 말았다.

2)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통합적 접근

통합적 접근과 전문성을 함께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논의 되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쉽지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가정교육과의 교수진들의 학문적 배경이 전문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적 접근에 대한 관심과 통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 가정교육과 교수로 부임하는 교수들의 경우 대부분 분과되고 전문화된 전공분야에서 전문성 위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가정학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교육학을 전공한 인적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과 통합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분야의 학자군 들이 형성되지 못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연구가 나오지 못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통합적 접근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도 학문적 전문화에 따른 분야별 집필만 주장할 뿐 통합적 접근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았다.

"가정과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수의 전공이 식품영양 전공, 의류전공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쪽내용은 절대로 뺄 수가 없었죠. 그분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내용만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해도 전혀 개

6) 생활 과학이라 함은 당시 Human Ecology 란 용어가 생소하여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생활과학으로 번역함에 따른 것이다(문 수재, 1998).

인간생태학의 철학적 근간을 마련한 Ellen Richard의 철학에 의하면 예를 들어 환경과 같은 전체적으로 접근해야하는 주제를 과학자, 정치가, 기업가들은 서로 각각 세분화 하여 그들의 전문적 지식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주변 환경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학에 있어서도 세분화된 전문성으로 접근하기보다 종합적인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독립적인 유기체라기보다 오히려 상호 의존적인 동물인 만큼 인간의 행동영역을 전체적 맥락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간 생태학이란 개인 및 집단을 물리적, 생물적, 사회적조건 및 그들을 둘러싼 사건들과의 관계로 보아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가정학의 인간 생태학적 접근이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또 한편으로는 사회생활에 관련된 법적, 상태, 그리고 규칙과 이념을 위한 연구와 특히 이 두 가지 요소 사이의 관련성을 탐구 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Compton, N. H(1972)).

선될 수가 없죠. 만약 자신의 전공 분야의 내용이 혹시 빠지더라도 하면 나중에 그쪽 분야 교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하니까” 직접 교육과정회의에 참여했던 교수, 교육행정가들의 말이다. 실제 가정교과서는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서와는 달리 각 단원별로 각각의 전공자가 참여하여 교과서를 개발하게 된다. 최근의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 내용의 전문성을 추구하게 되면 세분화된 전문분야별로의 접근으로만 나가게 되고 이는 통합적 접근가능성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통합적 접근성을 강조하다보면 전문성이 부족하게 된다.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편의주의적 또는 기능주의적 내용위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편성되어 가는 경향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물론 최근의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으로 학문중심보다 실천적 비판, 사회재건중심의 교육과정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나(류 상희, 1999; 유 태명, 1998) 이러한 교육과정의 관점은 가정교과뿐 아니라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관점의 특성이므로 가정교과에만 해당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통합적 접근을 하되 그 내용요소의 접근에 있어서 실천적 비판 또는 사회 재건중심의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가정과 교육전공 학자들은 주장한다.

3) 가정과 교육내용의 보수성

초기에 가정교과가 소개되었던 100년 전에는 일상생활의 개선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학은 진보적인 학문이었고 체제 개선 적이며 비판적인 실천과학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해방이후인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생활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우리사회

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가정학이 이에 앞장서는 학문이었다⁷⁾. 그러나 1980년대 사회의 산업화가 고도화 되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 감에도 불구하고 가정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여전히 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⁸⁾. 타 교과에서는 교과의 내용을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혁명적으로 변모시켜 가는데 비해⁹⁾ 가정교과の内容은 그 성격에 있어 가장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폭이 너무 적었으며 보수성을 고집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 가정교과는 그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과목으로 편입된 기술교과 부분을 가정학에서 떠맡아 교과시수를 늘리면서 한때 가정교과와 전성기를 누려왔으나 그 후 유증으로 현재 가정교과의 시수도 대폭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지 못해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이유는 대학입시에 관련된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왜곡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성공하고 있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학문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맥락에 맞춰 내용과 교수방법의 변신이 빠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혁신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입하는 과감함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진부한 교과라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류상희(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은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 목표, 조직에 대한 사고방식을 의미하는데 Brown(1980)이 제시한 가정과 교육과정은 실천적, 비판중심교육과정이 적절하다고 제안한 반면 우리나라 가정과 교사들의 경우 주로 인지과정 중심의 교육과정 관점이 선호도가 높으며 실제 교실에서는 기술적 교수행동

7)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던 당시 농촌의 생활 개선운동과 4H운동과 같은 농촌가정생활 개선은 가정과를 중심으로 농촌생활 지도사를 배출하였으며 이후 30여년간 식생활 개선 (혼 분식장려, 영양실태조사, 식단 짜기, 조리실습, 인구 보건 교육 등), 의생활 개선 (개량한복, 양복 만들기 등의 노작교육) 주거개량 (부엌의 인식화, 주거형태 개선 등) 등 생활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1980년대 이후 산업화가 더 진전되고 GNP가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물질적 개선보다는 인간관계의 질이 가정생활의 질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변모하게 되었다.

8) 1980년대 이후 생활개선을 요구하는 가정의 물질적 생활 조건이 많이 개선된 이후 가정생활의 질을 논의 하는 지표들이 물질적 생활조건에서 가족을 둘러싼 인간관계나 가족의 경제생활 등으로 변모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정교과와 주 내용은 여전히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의·식·주생활의 개선부분에만 강조를 하고 있었다. (5차 , 6차 교육과정 내용과 7차 교육과정 내용)

9) 예를 들면 6차 교육과정 개정시 도덕교과부분이 내용이 진부하고 교육의 효과성이 없다하여 학부형들의 많은 지탄을 받아 왔으나 도덕 교과는 생활과 관련된 가치교육을 지향하면서 가족관계 관련한 많은 가치교육을 새로운 교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필요한 교과로 인정되고 있다.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교사의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4. 교사재교육의 비실효성과 행정 정책가의 리더십부족

가정과 교사들의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연구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학문 중심, 기술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교육경력이 많지 않은 젊은 교사 층이나 가정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은 사회재건중심 교육과정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가정과 교사들의 재교육의 부재를 들고 있다. 즉 교사들은 자신이 당시에 교육받았던 방식대로 교육과정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류상희, 1999). 따라서 아무리 교육과정을 개정하거나 교과서를 새로 개발하여도 교사들의 교육과정 철학과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철학에 차이가 있으면 개발된 교육과정의 시행은 실패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가정과 교육과정이 단독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발이 7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교사재교육의 비효율성 때문이기도 하다. 즉 교육과정 개발자의 철학과 교사들의 교육과정관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개발하고 모든 교사들에게 이러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교육과정 개발 시 교사들에게 이러한 재교육의 기회는 많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을 관장하는 교육행정분야에서 가정과 교사의 진출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육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가정과 출신의 장학사가 한분도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을 정도로 행정직에의 진출이 저조한 편이다(윤인경, 1997).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가 저조하고 정책개발에서 소외되는 실정이다. 이는 내부적으로 멘토링 과정을 거쳐 네트워킹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도록 하는 끈끈한 리더십을 개발하는 역량의 부족으로 인한 부분도 있으며 리더가 될 만한 중간층을 키우지 못한 내부역량의 문제도 존재한다.

“솔직히 가정과 교사들은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직업생활의 중요성이나 역할인식보다는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서인지 직장에서 승진이나 교육

행정직에 대한 도전에 관심이 덜한 편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직장생활에 시간을 너무 빼앗기는 걸 싫어했지 않았나요?” 퇴직한 S교수

IV. 가정교과의 내용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거에도 교육과정 개정이 마다 가정교과는 거둬나야한다는 주장과 제안들이 있어왔다(이기열, 1991; 유태명, 1998; 윤인경, 1999). 이기열(1992)은 10년 후인 21세기를 바라보는 가정과 교육의 방향에서 가정학의 명칭변경문제와 가족의 역할변화에 따른 가정학 내용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창의력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교과내용을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내용 외에 산업체와 연관된 가정학, 가족과 지역봉사, 가족소비자 자원관리, 인체건강관리 및 문화 생태학의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대학의 가정학의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미 대학에 있어서 대부분의 가정대학은 생활과학대학, 생활문화대학 또는 생활디자인대학 등으로 대학의 명칭을 변경한지 오래일 뿐 아니라 관련 세분화된 학과의 성격도 인간중심 분야의 경우 아동, 가족학, 소비자, 주거, 식품영양, 의류학, 가정복지 분야 등 다양하게 세분화 되어 버렸으며 최근에 와서 의류학, 주거분야는 산업 디자인 분야와 접목을 하면서 사회에 진출 시키고 있어 가정학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식품 영양 분야의 경우도 많은 부분이 사회화 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아동양육이나 보육 부분도 사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실생활에서 배워야만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롭게 가정교과에서 다루어할 내용요소를 추출해야할 필요가 있다.

윤인경(1999)은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주장을 실천적 지식을 중시하고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교양 교육적 측면과 더불어 직업(전문)교육도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교육의 목표를 개인의 능력개발, 가정생활에 필요한 능력개발 그리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개발로 확장하면서 교육의 방법은 학습자 참여 수업으로, 교육의 평가는 능력, 과정, 수행평가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천중심교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정과 전용

실습실의 구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태명(1998)은 가정교과에 대한 철학적 사고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가정교육철학을 위해서는 “가정교육은 어떤 인간상, 사회상을 추구하여야하나”, “가정교육의 현장에서는 어떤 교육적 목표가 정당한가?”, “가정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가정교육의 목표가 이러한 철학적 기초에 맞게 구성되어있는가의 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는 가정교과의 교육이념이나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브라운이 제시한 실천적 비판교육과정을 수용해야함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정교과에서 추구하는 가정교육철학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자문해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7차 교육과정개정은 이제까지의 교육과정 개정에 비해 혁신적 교육과정이란 평가를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를 적용시키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가정교과가 추구하는 목표나 철학에 대한 검토가 실제 교사나 학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도 없기 때문에 가정과 교과의 목표나 철학은 논의 없이 교육과정내용에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게 되므로 과거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철학적 변화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정교과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재구성되었다는 인식은 크지 못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의 인식은 학생들의 과제물이나 교과서를 통해 그 교과의 특성을 인지하게 되는데 7차 교육과정이 혁신적으로 새롭게 변화하였고 교과서도 새롭게 변화하였다고 제시하고는 있으나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가 교과내용이 변화했다고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1. 가정교과의 이미지를 교육수요자에게 인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실제 가정교과의 내용이 내부자들의 입장에서는 혁신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을 수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에서 가정교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의 요구와 인

식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요자에게 환영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가족을 바라보는 철학적 시각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이 크다. 여성부에서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예를 들자면 모든 교과서에서 양성 평등적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왔다. 특히 가정교과의 경우 양성평등교육을 시키기에 적합한 교과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접근성이 큰 교과인데도 불구하고, 여성학이나 여성부가 바라보는 가정교과에 대한 시각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혹자는 가정교과의 전통적이고 보수적 가치규범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거나 또는 일부 진보적 가치를 가진 교사들의 인식변화가 충분히 홍보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가정교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미지와 인식은 내부자인 교수, 교사 및 가정교육전문가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 하지는 않는다. 교육과정의 편성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편성되어야 하고 수혜자인 학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한다(김경량, 2004).

가정에 대한 이미지를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윤지현(1997)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따뜻함(화목) 휴식 및 편안함, 공유(가족, 공간적 공동체, 의·식·주생활) 사회의 기본단위, 갈등 및 구속 등의 다섯 가지 주제의 이미지로 묶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가정생활 및 일상생활의 이미지는 반복, 단순함, 지겨움, 편안함과 안정감, 구속(답답함) 등으로 보고 있었다. 이 때 가정생활에는 가정관리, 의·식·주 및 소비생활로 진술하여 가정생활은 여성의 일이며 고유한 영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가 가정교과와 완전하게 부합되는 것은 아니나 일상생활 또는 가정생활이란 이미지는 단순, 반복, 지겨움, 구속 등과 편안함과 안정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가정교과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 또는 모호한 이미지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란 이미지는 아무나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교육관련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40-50대 남성들의 가

정교과에 대한 이미지는 가부장적인 가치선상에서 매우 단순하게 인식하고 있다¹⁰⁾.

의 문제와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변화, 그리고 자립적 생활이다.

2. 21세기를 살아갈 청소년 세대가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꼭 배워야 할 내용들에 대한 합의 도출

1) 여성·노동에 대한 관점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은 현재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가 전향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사회의 진보적 변화 양상도 수용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갈 청소년 세대가 꼭 수용해야 할 내용은 기술변화에 따른 정보화, 세계화

여성·노동에 대한 관점과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가치변화에 따른 교육의 요구 중 가정교과와 관련이 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세기는 여성부의 신설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노동에의 진출을 국가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이 앞으로 10년을 볼 때 혁명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또 이미 가족생활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¹¹⁾

이 분석을 보면 여성정책의 상당부분이 가정생활을 전향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¹²⁾ 따라서 가정교과의 내용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여성과 가정의

10) 기술가정문제로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가정생활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과 가구조립, 못 박기, 청소 등이 남아하는 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배우자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11)

	Strengths	Weakness	
Strengths	-여성관련 법률 및 정책의 국제조약비준, 할당제, 채용목표제등 우대조치, 여성인력의 고학력화 -평등의식의 점차고양 -여성운동 성장	-정치, 행정 의사결정의 낮은 대표성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가정과 직장 양립을 위한 인프라 취약과 여성들의 경력단절 -산업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및 훈련과정 미비 -시민 사회의 여성참여 저조	Weakness
Opportunities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여성정책주류화의 국제적 흐름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 -사이버 공간 -직종의 다양화 -근로형태의 다양화 -연성인적 자원 수요증대	-가부장적 사회문화 및 제도 존속 -역차별 피해 정서 심화 -여성들 내부의 지역, 세대, 직업별 양극화와 차이 심화 -세계화 과정에서 고용 불안정 및 세계여성 빈곤심화, 자본주의적 성 상품화 심화	Treats

자료: 2010 한국 여성정책 VISION 심포지엄: 차이, 평등, 공존, 2001, 한국여성개발원

12)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의 생애 주기적 차원에서 가정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장벽은 다음과 같다.

<한국여성의 생애주기별 사회문화적 장벽>

영유아기 (0-6세)	남아선호로 인한 낙태위험	성역할 고정시키는 교육			
아들중심의 가정운영	아동 청소년기 (7-18세)	보육시설의 부족	결혼중시의 잠재적 교육과정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절하	결혼스트레스	청·중년기 (19-35세)	입직의 장벽	Glass Ceiling, cement ceiling	고용불안정(해고 및 실업)
성폭력, 가정폭력	건강 수명단축		중·장년기 (36-60세)	의사결정에서의 소외	불안한 노후
	빈둥지 중후군			노년기 (65세 이상)	능력, 재산, 건강,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자료: 2010 한국 여성정책 VISION 심포지엄: 차이, 평등, 공존, 2001, 한국여성개발원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어떤 내용요소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작 있어야 했으나 이러한 접근에 대한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여성정책의 관점을 고려한 가정교과와 내용요소를 살펴 보자면 80년대와 90년대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증진을 비취업 주부의 시간제 노동도입등과 같은 소극적 접근을 해 왔으나 앞으로 노동·경제에 대한 관점은 평생 평등노동의 관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성폭력에 대한 관점은 과거 인신매매, 성폭력, 미혼모, 윤락여성급증 등의 문제를 성윤리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강력히 규제해야한다는 인식이라면 미래 10년을 볼 때는 여성 대 남성의 문제가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 배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족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최근의 가족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포함하는 가족정책으로 가야함을 보여주고 있다.¹³⁾

이와 같이 가정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점차 변모해 감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진입은 자연스럽게 가정 내에서의 가사노동과 양성 평등적 분배와 공동육아 및 복지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김태현, 2003). 즉 가정 내에서 자녀양육, 노인부양과 가족간호와 같은 가족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형태가 사회화되는 쪽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다양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여성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및 참여 민주주의형태가 실천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Leonhauser, 2003). 여성의 정치참여와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는 우리사회의 가정을 둘러싼 생활공동체에의 참여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할 때 가정교과는 이 중 어느 정도를 내용요소에 반영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며 기존 산업화 시대의 노동/가정의 분화를 이루던 시대의 개별가정의 미시적 관리에 필요한 의, 식, 주, 가족, 소비자, 가정관리와 같은 전문

화 패턴은 이제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2)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른 노동과 소비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점

세계화는 개인과 가정을 어떻게 변모시키는가? 세계화(globalization)란 경제적 의미에서 국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 간 자본과 상품의 이동, 정보와 지식, 노동과 문화의 이동이 보다 활발해져서 국내에서의 이동과 국제간의 이동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 어느 곳으로도 온라인으로 주문 판매할 수 있어 국경의 의미가 퇴색한다. 또한 경제는 과거와 달리 탈 물질화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정보, 관계, 저작권, 오락, 금융 상품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다룬다는 점이다. 1999년 세계교역시장의 20%이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므로 소비자가 아닌 생산소비자 즉 프로슈머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가족이 경제적 생계를 함께하는 단위로서의 가족의 의미도 점차 변화해 가고 있다. 최근의 한국의 급속한 이혼율 증가는 결혼을 통해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정생활을 책임지는 이원화된 가치를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일생을 통한 생계모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 노동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삶의 양식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기획하여 살아야 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의 생애주기별 삶의 모형을 설정하되 이때 경제적 문제 즉 노동과 소비의 문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994년 미국의 가정과 교육학회는 명칭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

13) '다양한 가족' 주창자들에게 가족이란, 실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계에 부여하는 의미와 헌신에 의해서 구성되는 생활 단위일 뿐이다.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적 결혼이나 혈연관계와 같은 것은 이 같은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과 본질적인 관계가 없다. 혈연으로 묶여 있더라도 폭력적이고 소용되지 않는 가족관계의 예는 얼마든지 있으며,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통해 떠들썩하게 부부로서 공인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고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관계는 대단히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족의 정의가 혼인이나 혈연이 아닌, 관계의 배타성 및 지속성, 정서적 및 경제적 의무 및 책임의 수준, 일상생활의 공유 및 상호의존 정도,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표명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구성될 수 있다는 견해(Stacey, 1991)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가 특정한 가족형태를 '정상가족'의 표준으로 삼아 가족을 정의하고 지원하는 것은 결국 개인들의 다양한 함께 살기 방식을 규율하려는 시도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이프스타일을 위계화하고 표준에서 어긋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차별/배제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다. 배은경(2004) 미래전략포럼 가족노동분과 - 한국가족의 변화와 성별관계에서 (이처럼 다원화된 가족에 대한 가치를 가정교과에서는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고 있는데 전통적인 의·식·주 그리고 아동발달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두지 않고 가족생활(family life) 노동생활(work life) 그리고 노동을 위한 직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대한 통합적 측면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었다(Wanda S.Fox,1996, Virginia Vincenti, 1997). 그들의 비전은 첫째,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전 생애에 걸쳐서 광범위하고 폭넓은 사회에서의 생활(living)과 일(working)에 대한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힘(empower)을 부여한다는 것과 둘째, 가족, 일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가정학회, 가정과 교육학회가 결정한 Family and Consumer Science의 의미는 가족과 일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내용요소를 구성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가족 즉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내용요소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결과 미국의 경우, 남성 가정교과 교사의 수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중등학교 가정교과의 선택은 남학생이 40-50%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⁴⁾

일본의 경우 이춘식(2004)은 일본의 교육과정과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을 비교하면서 일본의 교육과정이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생활의 주체인 인간과 가족에 관점을 두고 이들의 복지 및 생활의 자립에 관점을 둔 교과로서 성격을 분명히 한 반면 우리나라의 7차 교육과정은 실천적 학습을 강조하는 교과이되 교과의 성격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서술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술·가정교과서에 다루는 내용보다 일본의 교과서에서 다루는 범위가 더 넓고, 심화된 수준을 다룬다. 특히 동일한 주제를 다루어도 일본의 교과서는 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생활의 자립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족과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보화 사회, 세계화의 특성변화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가정교과는 여전히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의 개선, 가정생활, 자원관리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대학의 가정 교육과에서도 의생활, 식생활 영역의 교과목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가정과 교육관련 교과목 개설이 미국에 비해 부족하게 개설되어 있어 대학가

정교육과 교육과정부터 왜곡되어 있고 사회의 변화에 맞게 변화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임일영·윤인경,1998) 이는 교사 임용 고시의 출제문제에서도 여전히 식생활 영역과 의생활 영역의 비중을 크게 두어 교사들의 교과내용의 집중정도를 왜곡시키고 있다.

물론 가정교과가 인간의 물리적 환경 즉 인간의 신체와 정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를 다룬다고 한다면 인간의 신체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식생활 측면과 휴식과 정서적 유대를 갖게 되는 의·주거환경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나 인간생활의 핵심적인 문제인 가족과 가족생활 유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과 소비의 문제가 더 핵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식생활은 실제 가정에 있어서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생활문화이다. 그러나 식생활도 시장에서 문화적 융합으로 Fusion 음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퓨전 음식의 유행은 식자재의 글로벌화 및 식자재의 표준화에 기인하기도 한다. 과거 가정의 가장 고유한 개성을 나타내던 음식 맛도 식자재의 표준화로 맛의 표준화를 이룰 뿐 아니라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음식문화가 융합되고 있다. 또한 산업화 시대의 가정이태올로기의 붕괴와 여성의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식생활은 가정 내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외식시장에서 가족의 식생활이 해결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래로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즉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족일 경우 주중에는 가족과 식생활을 함께하기가 어렵고 주말에만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추세는 주생활 디자인에서 부업의 크기가 점차 축소화 되는 현상이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따라서 주말에는 식사준비가 사노동이라기보다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가족의 단란함이나 즐거움을 나타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노작(勞作)교육으로서의 실습교육의 요구와 생활문화에의 전수

물론 직업과 일에 대한 탐색과정으로 조리실습, 의복디자

14) 이 보고(1995)는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생활과학대학 학장인 Coby Simerly의 개인면담에 의한 보고에 의한 것으로 네브라스카 주의 중고교생들 중 40-50%가 변경된 명칭의 Family and Consumer Science교과를 선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인 및 만들기, 주거 디자인 실습 등 노작교육의 필요성은 다른 차원에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직업탐구 과정으로서의 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므로 이는 오히려 더 전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험실습교육은 또한 창의적 설계를 위한 주제로서 일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준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된다. 따라서 의, 식, 주의 내용들은 환경교육, 소비자 교육, 창의적 설계(기획)교육 등의 주제로서 필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습교육은 생활 문화의 전수 및 독창적 생활 문화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된다. 이는 세계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국가나 지역문화의 보존이 오히려 그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내용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의, 식, 주의 생활 문화적 내용요소와 실습교육은 장애 이와 관련된 직업적 소양을 키우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지속가능 소비문화의 확산과 실천을 통한 공동체 참여

최근 지구자원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문제이며 에너지 사용문제 등은 국가의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환경교육은 생태계의 보존이나 환경과학 중심으로 접근되고 있지만 실제 환경교육의 핵심은 생활 소비패턴의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소비 실천으로부터 온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환경 의제가 제시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운동이 생활에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어렵다. 우리는 에너지 보유국이 아니면서도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원전 반대 운동도 매우 적극적인 국가이다. 즉 비판철학적 사고는 하고 있지만 생활 실천에서는 지속가능 소비가 실천되고 있지 못하다. 소비문화에 있어서도 과시소비가 많고 생산체계에 있어서도 소비자주권을 실현시킬만한 시장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문화 내용요소나 저작권과 같은 서비스생산과 소비의 관행도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 똑똑한 소비자로 키우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효율적 시장 환경을 만들어 주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이 최근 재정경제부와 소비자보호원의 강력한 의제가 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 불황의 일부 원

인도 결국 소비자의 잘못된 소비관행에 의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므로 합리적 소비자 시민을 키우는 소비자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며 이는 미래 소비자의 경우 더 필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소비자교육과 환경교육을 통합한 지속가능 소비문화 교육 등은 필요할 때 잠깐만 이슈화가 되는 과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기초교육이므로 이러한 과제를 유럽에서는 유치원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량활동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교과내용이 포함될 경우 사회적 운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연계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습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를 배움으로서 선진복지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가정교과 등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분이 가시적으로 표면에 나타나 있지 못하고 또 이 분야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은 있으나 교사 양성기관인 학부의 교육과정에서 지도되고 있지 못하므로 심도 있게 다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7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가정교육과정의 내용과 목표를 심도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이연숙 외, 2005) 참여자들의 관점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V. 논의 및 결론

가정교과에 대한 현재위치에서의 문제는 '가정교과에 대한 끊임없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다. 그동안 가정교과의 목표 및 내용체계에 대한 재정립 요구와 연구도(2005, 전국 가정교과 교사모임)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사회 변화에 따르는 가정교과의 교육 목표와 내용체계에 대한 연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이 교과가 필요한 교과로 인지되지 못한다면 이는 내부적으로 홍보부족이나 이미지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미지 변신을 위한 명칭변화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경우 과거 농과 대학이 이미지 변신을 통해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

다. 농과 대학이라 하면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자원학 또는 농업 생명과학이란 명칭변경으로 오히려 차세대 유망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교과내용을 포함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얻어 교과시간을 확장하고 확보하는 전략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여성부에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자 하는 성인지적 교육, 양성평등교육의 전략과목으로 과감히 탈바꿈하면서 여성계와 함께 수업시간 확보를 주장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이 어찌면 위기일수도 있지만 또한 기회일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산업 경제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후기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생산경제보다는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지속가능 소비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이므로 이 부분도 우리 교과에서 아우르고 가야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신용경제교육 및 소비자 권권확립을 통해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똑똑한 소비자, 공익적 시민운동을 통해 지속가능소비를 실천하는 건강한 시민을 키울 수 있는 교과로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교과와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요소의 강조는 선진 사회로 가는 미국이나 일본등지에서는 이미 가정교과에 도입되어 보편화시킨 내용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과와 목표 및 내용체계는 가족과 소비자를 중심축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부분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구성 체계와 다원적 문화를 포용하는 열린 가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에 있어 양성평등적이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진출부분과 가정생활기능의 사회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정역할과 의사결정부분에 대한 가치교육, 선택과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생활공동체의 참여, 복지기관에의 자원봉사과 같은 내용에 더 중점을 두어 이러한 주제를 비판 과학적 철학에 바탕을 두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지구환경자원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 소비와 이의 실천등과 같은 사회재전 중심 교육과정 관점이 도입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가정학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건강가정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가정의 건강성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결하는 Extension service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가정교과와 내용혁신은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앞서서 수용하는 가정교육 전문가들의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이를 실천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현장 교육담당자들의 끊임없는 현장 적응노력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각계의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과정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경동(2000) 사이버 시대의 도래와 삶의 질 : 문명론적 고찰, 제 22회 삶의 질 심포지엄 자료집, 아산 사회복지 사업재단

김경량(2004) '중등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토론, 중등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전국 공청회, 한국 기술단체 총 연합회, 한국 기술교육학회, 한국 가정교육단체 총 연합회,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

김태현(2003)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생활환경, 제 56차 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강연, 대한가정학회 제 56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류상희 (1999) 가정과 교사들의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변수,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 제 11권 2호

문수재 (1998) 21세기 한국 가정학의 인간 생태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강연, -가정학에서 인간 생태학까지-, 문수재교수 퇴임 기념 논문집

박명희(2004) 정보화와 가족소비 생활의 변화 - 2004 미래전략 포럼 자료집

박명희(2005) 가정교과와 새 패러다임을 찾아서 -영양교사문제 위기가 기회인가-가정과 교육의 도전과 전망 I. 2004년도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 동계 학술대회 자료집

배은경(2004) - 한국가족의 변화와 성별관계, 미래전략포럼 가족노동분과 발표자료집

왕석순(2001)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와 가정과 교육의 방향, 지식기반사회에서 실과·기술과·가정과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2001년 8월 31일 교육과정평가원 세미나 발표자료

유태명(1998) 가정과 교육의 종합적 진단과 처방II, 가정과 교육학

- 회 동계학술대회 주제강연, 가정과 교육학회지 10권 1호
- 윤인경(1997) 가정과 교육의 종합적 진단과 처방 I, 가정과 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 주제강연, 가정과 교육학회지 9권 2호
- 윤지현(1997) '가정생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가정과 교육학회지, 제 9권 2호
- 이상봉(2004) 기술교과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중등 기술·가정교과 왜 분리·독립·필수인가?, 중등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전국 공청회, 한국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 기술교육학회, 한국 가정단체 총 연합회,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
- 이연숙, 박명희, 왕석순, 전미경, 정미경, 채정현 (2005)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가정교과의 대안적 모형, 21세기 가정과 교육의 내용과 방향, 2005년도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춘식(2004)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2004년도 교육과정 기초연구 위탁과제 답신보고서
- 임일영, 윤인경(1998) 한국과 미국대학의 가정교육과 교과목 비교연구,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10권 1호,
- 전국가정교과 교사모임(2005) 가정과 교육의 교과목표 재정립, 2005년도 제 1차 학술포럼, 21세기 가정과 교육포럼 -1,15-24
- 조옥리(1986) 가정과 사회, 그리고 여성의 일 - 열린 사회 자율적 여성- "또 하나의 문화" 제 2호
- 함인희(2004) 흔들리는 가족, 위기인가 기회인가? - 2004 미래전략 포럼 자료집
- Compton, N. H(1972) The Focus in on the Environment, *Journal of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Sept. 64: 6-12
- Hunt, L. Caroline(1958) The Life of Ellen H. Richard,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Ingrid-ute Leonhauser(2003) Woman's role in the context of coping with everyday life: challenges for public and privacy. The German situation, 제 56차 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강연, 대한가정학회 제 56차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 Sarah Stage(1997) *Ellen Richards and the Social Significance of the Home Economics Movement, Rethinking Home Economics -Woman and the History of A Profession-Sarah Stage and Verginia B. Vincent* edited, Cornell University press
- Wanda S. Fox(1996), A call to explicate the vision and miss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 Vol 14, No.1 spring /summer
- Virginia B. Vincenti(1997) *Home Economics moves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Rethinking Home Economics -Woman and the History of A Profession-Sarah Stage and Verginia B. Vincent* edited, Cornell University press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정교과와 내용요소와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수요자가 추구하는 요구에 부응하면서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원론적 차원에서 고찰하여 가정교과와 내용혁신을 시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현재 가정교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 결과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원화된 가족의 구성과 가족문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교과내용 도입이 지체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와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통합적 접근의 문제, 가정학의 학문적 보수성 그리고 교사재교육의 비실효성과 행정 정책가의 리더십 부족 등이었다.

가정교과와 내용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서 가정교과와 목표 및 내용체계는 가족과 소비자를 중심축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부분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구성 체계와 다원적 문화를 포용하는 열린 가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에 있어 양성 평등적이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진출부분과 가정생활기능의 사회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조정역할과 의사결정부분에 대한 가치교육, 선택과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생활공동체의 참여, 복지기관에의 자원봉사와 같은 내용에 더 중점을 두어 이러한 주제를 비판 과학적 철학에 바탕을 두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구환경자원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 소비와 이의 실천등과 같은 사회재건 중심 교육과정 관점이 도입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가정교과와 영역별 전문분야별 접근보다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논문접수일자: 2005년 12월 23일, 논문심사일자: 2006년 1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3월 16일